

<용어체크>

인공지능

사람처럼 행동하도록 만들어진 장치(또는 소프트웨어)이다. 장치가 프로그램을 통해 '판단'하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다.

시냅스 가소성

시냅스를 통해 신경 전달 물질을 많이 전달하면 관계가 강화되고 적게 전달하면 관계가 약화되는 현상이다. 기억력과 학습 능력 형성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

튜링 테스트

판정자가 사람 1명, 기계 1대와 무작위로 대화를 한 후 상대가 사람인지 기계인지를 판별하는 시험이다.

<학습내용>

인공지능 정의

인공지능의 탄생

튜링 테스트와 인공지능

<학습목표>

인공지능의 기본 개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인공지능의 다양한 분야를 나열할 수 있다.

튜링 테스트를 통한 인공지능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Q.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 또는 기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동작을 해야 인공지능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 초기 컴퓨터가 등장했을 때에는 사람의 제어가 통제하지 않는 범위의 기계 동작을 인공지능이라고 부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단순히 사람이 제어하지 않는 기계라고 해서 인공지능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인공 지능의 정의는 컴퓨터가 사람처럼 '판단'이라는 것을 하면서 자신의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기능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조건 분기를 통한 자동 제어가 아닌 사람처럼 불확실한 사실에 대해서도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인공 지능이라고 부르기에 충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